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단양

강 옥
자유기고가

단양(丹陽)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 천혜의 관광지역이다. 남한강이 26km를 동에서 남서쪽으로 흐르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강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단양은 전 면적의 83%가 산으로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을 위시해서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이 500여 곳에 이르고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계곡이 있다.

단양은 일찍 ‘정감록’에 나오는 양백(兩百)지간으로 인간이 무소유로서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 이미 70만년 전부터 단양에 사람이 살았다는 선사유적지가 5개소나 현존하고 있다. 이곳의 남한강 언저리에는 선사시대의 돌화살촉과 사람뼈 따위가 출토되어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을 보여준다. 한강과 수많은 골짜기에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려 단양은 글자 그대로 산고수려(山高水麗)한 청정의

땅으로 이름났다.

단양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단양팔경(丹陽八景)을 떠올린다. 단양팔경은 단양군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인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구담봉, 옥순봉,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을 일컫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앙선 기차를 타면 도담역이라는 데에 이르게 된다. 매표읍 도담역은 단양군의 관문 노릇을 하는 곳이다. 역 앞에서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남한강이 나오고 그 줄기가 크게 한번 굽이져 내리는 북편에 바위 봉우리 세 개가 사이좋게 서 있다. 이 세 봉우리가 그 유명한 ‘도담삼봉’이다. 가운데의 큰 봉우리는 남편 봉우리, 하류 쪽의 수더분하게 생긴 봉우리는 아내 봉우리, 그리고 상류 쪽의 뒷부분이 교태를 부리듯이 살짝 꼬부라진 봉우리는 첩 봉우리라고 한다.

도담삼봉은 단양을 찾는 사람이면 꼭 보고 가야만 이야기 거리가 된다고 하는 남

한강 상류의 명승지이다.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배를 타거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유람선을 타고 한바퀴 돌기도 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이곳에 은거하여 자신의 호를 도담삼봉에서 따와서 삼봉(三峰)이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하선암은 단성면 대잠리에 있다. 심산유곡의 첫 경승지로서 불암(佛岩)이라 부르던 3층의 넓은 바위를 조선 성종 때 임제광이 선암이라 부른 뒤부터 하선암이라 개칭하였다. 봄에는 철쭉꽃,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며 절경을 이룬다.

중선암은 단성면 가산리에 있으며 삼선구곡의 중심지이다. 흰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효종 때 곡운 김수증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암계류에서 쌍룡이 승천하였다 하여 쌍룡폭포라고도 한다. 중선암에서 약 2km 올라가면 상선암에 이른다. 수만 장의 청단대석(靑丹大石)으로 된 벽과 반석 사이로 계수가 흘러 폭포를 이루는 절경이다.

구담봉은 단성면 장회리에 있다. 남한강을 따라 깎아지른 듯한 장엄한 기암괴석으로 그 형상이 마치 거북 같다 하여 구봉(龜峰)이라 하였다. 옥순봉은 솟아오른 봉우리가 자유분방하고 기상천외하여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렸다. 명종 4년에 단양 현감으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석벽에 ‘단양동문(丹陽同門)’이라 새겼다 하며, 우후죽순같이 솟아오른 천연적 형색이 희다 하여 옥순봉이라 하였다.

석문은 도담삼봉 하류에 있다. 남한강변에 높이 수십 척의 돌기둥이 좌우로 마주

보고 서 있고, 그 위에 돌다리가 걸려 있어서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인암은 대강면 사인암리에 있으며, 덕절산 줄기에 깎아지른 강변을 따라 치솟아 있다. 고려시대의 학자 우탁(禹倬)이 사인재관 때 이곳에서 자주 휴양한 데서 사인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단양군에는 대강면의 죽령폭포, 칠성암, 다리아산, 영춘면의 북벽, 온달성, 가곡면의 구봉팔문, 어상천면의 일광굴, 적성면의 금수산 같은 이른바 ‘제2 단양팔경’도 있다. 또 영춘면에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 본산인 구인사가 웅장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의 산성 터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단양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을 벌인 땅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바보였으나 고구려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아 장수가 된 온달이 신라와 맞닥뜨려 싸운 온달산성이 영춘면 하리의 남한강가에 700m 쯤 남아 있다.

사적 제264호로 지정된 온달성의 형태는 반월형으로 높이 3m, 둘레가 682m이며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한 이곳에는 성산 기슭의 온달동굴 등 온달과 평강의 전설이 서려 있는 각종 유적지와 명소를 묶어 ‘온달관광지’가 조성되어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단양은 이밖에도 적성산성, 독락산성, 가은암산성, 소백산성 등 20여 곳의 산성이 아직 남아 있다.

단양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개가 으뜸가는 구경거리로 고수동굴을 꼽는다. 남한강가에 있는 단양읍 고수리 일대에는 예전부터 숲이 울창해서 이곳 사람들이 고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숲 속에 있는 고수동굴은 땅속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몇 십억년 동안에 걸쳐 석회암을 녹여 만든 길이 315m의 천연동굴이다.

고수동굴은 수 만가지 형태의 기기묘묘한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는 요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장관을 이룬다. 동굴 안은 사계절 섭씨 15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고수동굴은 짧은 시간이나마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 256호로 지정되어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유동굴로 손꼽힌다.

수리봉은 대강면 방곡리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소백산맥 능선상의 한 봉우리로서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산행기점인 방곡리는 전통 도예마을로 유명하다. 이곳은 도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옛부터 도자기마을이 수리봉 아래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조선시대 민수용 도자기의 집산지인 방곡도예촌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판매와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춰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단양군의 특산물로는 질 좋은 육쪽 마늘이 유명하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서울의

마늘 시장인 경동시장에는 “단양마늘”하고 외치는 상인들의 목청이 높아진다. 단양군에서 가꾸어진 마늘이 다른 곳의 마늘보다 품질이 뛰어나서 “마늘 중의 마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대개가 쪽이 여섯개인 단양마늘은 맵고 향기가 높아서 조금만 쓰여도 훌륭한 효과를 낼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을 나는 동안에도 좀체로 잊무르거나 푸석푸석해지는 법이 없어 저장성이 우수하다.

영춘의 자석벼루도 이 지방의 특산물로 손꼽힌다. 남한강 기슭 야산의 석광에서 채석되는 단단한 원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 벼루는 돌결입자가 곱고 아름다운데 모두 수공예로 제작되고 있다.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 솟은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민족의 명산이다. 형제봉을 시작으로 신선봉, 국망봉, 비로봉, 연화봉 등 명봉들이 웅장함을 이루고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소백산의 사계는 너무나 아름답다. 봄에는 연분홍 철쭉이 온 산야를 뒤덮고 여름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 가을에는 만산홍엽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특히 눈꽃이 만개한 정상의 백색설경은 겨울산행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해마다 5월말에서 6월초면 소백산과 단양군 일원에서 철쭉 향기 그윽한 ‘소백산 철쭉제’가 성대히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에는 전국에서 매년 10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온다. 또한 매년 가을이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다시 피우기 위해 ‘온달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